



근대문명과 신체정치

대사(大使)가 한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 것은 국제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사절의 혈통이나 성별, 용모 등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얼마 전 이임한 해리 해리스(Harry Binkley Harris Jr.) 주한 미국대사는 서방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혈통과 용모가 빌미가 되어 한국에서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음을 토로했다.

문제의 발단은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노선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부 정치인 및 급진단체들이 점차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그의 일본계 혈통이나 콧수염 외모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논란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몇몇 국내 급진단체들에 의한 횡단막 속의 미 대사 얼굴에서 콧수염을 뽑는 영상 역시 전 세계로 송출되기도 했다. CNN이나 BBC 같은 다수의 서양매체들은 해리스 대사의 용모를 빗대어 ‘조선총독’ 또는 ‘순사’로 칭하는 한국사회의 반응을 인종주의에 기초한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외의 비판과는 무관하게, 해리스 대사의 용모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여전히 단일혈통 신앙에 기초한 인종주의 및 피해자 의식으로 점철된 집단기억에 갇혀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 해군장교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성장군까지 올랐던 해리 해리스는 40년 군생활을 접고 외교관으로서의 새 인생을 기념하고자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키가 더 커질 수도, 더 젊어질 수도 없다. 그렇지만 수염은 기를 수 있었다. 그래서 길렀다.” 그의 말대로 일상의 변화를 꾀해보자는 단순한 동기였을 수도, 외교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콧수염으로 관록을 ‘보충’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후자였다

면 의도하지 않게 그는 갈등을 야기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컨대 외교무대 초유의 ‘콧수염 사건’을 전하는 일부 미국 신문들의 기사 제목에 포함된 ‘모욕적인(offensive) 수염’, 또는 ‘너무 일본적인(too Japanese)’과 같은 수식어가 주한미국대사의 콧수염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면, 해리스 대사의 변신은 주재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나 배려의 부족을 드러내는 비외교적 시도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의 콧수염이 식민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도산 안창호 같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도 콧수염을 기른 사례를 들어 반론했거니와, 이는 한국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선택적, 또는 자의적이라는 비판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그의 반론이 일정부분 타당하다 할지라도 구한말 이후 적어도 반세기 이상 남성의 수염은 문명과 권력을 과시하는 징표였고, 그것을 온전하게 과시한 주체는 일본이었다. 근대사를 증언하는 빛바랜 사진 몇 장만 들춰봐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07년 일본의 요시히토 황태자가 내한했을 때 창덕궁에서 영친왕을 위시하여 양국의 각료들이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 속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해군대장 도고 헤이하치로 등 일본의 파워엘리트들은 조선 각료들보다 눈에 띄게 풍성한 수염을 뽐내고 있다. 전원이 서양식 예복을 차려입은 가운데 일본인들의 안면에서 한껏 강조된 수염은 개개 인물의 층위를 넘어 민족집단 간의 우열을 가능하게 하는 특권적 징표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수염은 한국, 중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단구인 신체적 조건을 상쇄하고 대일본제국의 위세를 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적 요소였던 셈이다. 사진 보도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무공을 선전하는 니시키에(錦繪)는 서양식 군복과 병기에 더해 풍성하고 잘 정리된 수염을 갖춘 위풍당당한 일본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낡은 전통복장과 빈약하고 초라한 수염 속에 무기력함을 감춘 청국, 조선의 병사라는 구도를 항시 채용했다. 이 경우에 그림 속 일본군 장교, 장성들의 안면에 위엄을 부여하는 수염은 누가 문명의 주체이며, 어느 쪽이 승리할 자격이 있는지를 설파하는 신체상징이었다.

수염이 일본인들의 얼굴에 자리잡게 된 것은 근대부터이다. 한껏 위엄을 드러낸 수염과 함께 대중에 각인된 메이지천황의 군복차림 공식초상은 얼굴에 자라는 체모에 대한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극적으로 전환시켰다. 막부 말기 서양인 사진가가 찍은 사진 속에서 전통복장을 한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어설프게나마 서양식 군복을 입은 사무라이들도 한결 같이 수염이 없는 미끈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장의 유명한 사진이 있다. 네덜란드 선교사로 파견되어 유신전후 정치고문으로 활동한 귀도 페어백이 정 중앙에 위치하고 그의 주위로 메이지천황, 사이고 다카모리, 모리 아리노리, 오키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 유신의 주역들이 보인다. 그런데 44명이나 되는 일본인들 무리 속에서 페어백의 존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진 속 얼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수염을 기른 그의 용모이다. 이 사진은 근대기 일본인들의 얼굴에 도래한 수염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래했는지를 말해준다.

본디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수염을 추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겼다. 당연히 사무라이들은 면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이누는 전통적으로 남자의 경우 얼굴을 온통 뒤덮을 정도로 수염을 길렀고, 여자들은 입주위에 수염 문신을 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것을 그들이 야만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저열한 습관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안면 일부에 체모를 기르는 혐오스런 외부자는 아이누에 그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일본인들은 나가사키에 도래하는 서양인들을 게토(毛唐)라고 불렀다. 털북숭이 외국인, 혹은 야만인이라는 뜻일 것이다. 평소 수

염을 기르지 않았던 페리 제독의 얼굴을 털복숭이 도깨비 형상으로 묘사한 당시의 그림을 통해서도 수염이 외부의 적대 세력에 대한 반감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불쾌하고 이질적인 신체적 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부터 10년도 되지 않아 일본이 서양의 우위를 인정하고 문명개화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우수하고 유능한 후발주자였는지는 굳이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서양을 모델로 삼았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따라잡고 추월하기’(追い付き追い越せ; 오이츠키 오이코세)’였던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한 세기 반을 되돌아볼 때 이러한 목표가 마냥 허황된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더러는 근원적 한계에 맞닥트려 암중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하기도 했다. 예컨대 신체의 근대화라는 측면은 어떠한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물질과 제도와 사고는 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뀌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전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신체를 어떻게 하면 서양인의 그것에 근접하게 ‘개량’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그가 제시한 답은 육류를 섭취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기를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작았던 키가 커진다는 것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목표였다. 체형이나 체질과 같이 후천적으로 바꾸기 힘든 한계요인이 존재하는 한, 신체를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꾸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극동의 섬나라 일본의 경우 두발형태나, 복장, 장신구 같은 것을 서양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신체의 근대화 양상이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어왔다.

허나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 히로부미 등 초슈 화이브로 대표되는 메이지시대의 파워 엘리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신체 외피의 개량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간파했다. 이것이야말로 ‘피상적’ 근대화라고 하는 구조적 결여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서세동점의 백척간두에 선 조국 일본의 운명을 근심하며 독립운동하듯이 서양의 문화와 풍습을 몸에 익히고 얼굴에 나는 체모를 정성껏 관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키가 더 커지거나 더 젊어질 수는 없지만 자신의 신체에서 유일하게 수염만큼은 스스로의 의지나 취향대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염을 길렀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상기해보자. 이 발언을 통해 문명개화를 선도하던 메이지시대의 엘리트들이 과거에 야만의 표상으로 여겼었던 수염에 집착하게 된 배경을 가늠해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 타고난 신체적 조건을 통해 서양인들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수염을 문명세계의 기준에 맞게끔 기르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양식 군복에 수염을 기른 메이지천황의 공식 초상이 탄생한 것 역시 신생국가 일본의 절대군주에 대한 서구 제국의 관심과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 그 직접적 배경이라는 견해도 새겨들 만하다.

문명국은 다른 문명국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불문율을 학습한 메이지시대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문명화된 용모와 외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문명국의 일원으로서의 시민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과정에서 생산된 무수한 이미지표상은 일본 인만이 몽골로이드 인종 중 예외적으로 문명화된 신체와 용모를 지니고 그에 걸맞는 고도의 문명을 성취했음을 내외에 설파하는 일종의 상징조작이었다. 러일전쟁 승리 후 적장 아나톨리 스테셀 장군 곁에 정좌한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의 안면 하반부를 차지하는 풍성한 백발의 수염은 러시아장군의 검은 카이저 수염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일본이 인종적 한계를 넘어 열강의 반열에 오를 자격을 두루 갖췄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수염은 가장 정치적인 신체요소이다. 수염을 통해 신체정치를 전개한 것은 백인남성이다. 18-19세기에 유행의 정점에 이른 수염 기르기는 백인남성이 스스로를 여성과 유색인종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정치가 미치는 범주는 성별과 인종만이 아니었다. 계층, 계급을 가시적으로 분화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수염은 백인남성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서양으로부터 수염의 신체정치를 학습한 일본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메이지천황을 정점으로 수염은 관료, 장성 등 각 분야의 상층부 엘리트들이 기르기 시작했고, 태평양전쟁 말까지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신체요소로 정착해갔다. 사병이나 평사원, 평교사가 수염을 기르는 것은 계급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수염은 통솔하고 계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특권적 신체상징이었다. 한국인의 집단기억 속에서 서양식으로 문명화된 수염은 스스로의 몫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언제나 조선사회 상층부에 군림하던 식민자의 권력과 결부된 신체상징이었다.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논란은 당사자로서는 건디기 쉽지 않은 곤경이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무심코 지나쳐왔던 근대사의 편린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대다수의 서구 언론이 해리스 대사를 상대로 한 한국사회의 공격을 인종주의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지 18-19세기 백인남성 엘리트들이 전세계를 무대로 행사했던 수염 신체정치가 내포하는 인종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윤상인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